

팬 투표 역대 최고 캡틴

여름 “K리그1, 광주 쉽게 못 볼걸?”

광주 FC 창단 10주년 역대 베스트 11 선정 이벤트...여름 73% 득표 최전방에 펠리페·정조국, 미드필더에 나상호·임선영·김호남 등 광주 FC 내달 9일 개막전 유력...여름 “팀 분위기 끈끈...빨리 뛰고 싶어”



“(이)승기 형, 전복하고 만나도 안 봐줄 거니까 열심히 해볼게.”

광주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투표에서 최다 득표로 역대 베스트 11의 영광을 얻은 ‘캡틴’ 여름이 유쾌한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2011년 첫 시즌 이후 지금까지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뽑는 ‘역대 베스트 11’ 이벤트를 진행했다. 팬(ID당 1일 1회 참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에는 700여명(1100여회)이 참여해 주역을 떠올렸다.

여름은 73%(860표)의 지지를 얻어 베스트 11 투표에서도 ‘캡틴’이 됐다.

2012년 고향팀 광주에 입단한 여름은 157경기 9골 11도움을 기록한 원클럽맨이다. 2018년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그는 지난해 팀의 부주장으로 K리그2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최전방에서는 펠리페와 정조국이 팬들의 선택을 받았다.

2018년 팀에 합류한 펠리페(42경기 26골 5도움)는 지난해 최다득점상(19골)을 수상하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광주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정조국(제주)은 31경기 20골 1도움과 함께 K리그 3관왕(MVP·BEST11·득점왕)이라는 업적을 쌓았다.

미드필더에선 여름과 함께 2018 K리그2 3관왕에 빛나는 나상호, 광주 창단멤버로 125경기 16골 8도움을 기록한 임선영(성남), 2015년까지 광주 측면을 책임진 김호남(인천)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탄탄한 대인마크로 승점을 지킨 김영빈(강원)과 이한도가 센터백, ‘프리킥의 달인’ 이종민(은퇴)과 역시 명품 키커로 활약하는 이요뜸이 측면에 위치했다.

최고의 수문장 타이틀은 2016년 0.9점의 실점률로 팀의 역대 최고 순위(8위)에 기여한 윤보상(제주)이 차지했다.

최다 득표자인 여름은 “베스트 11에만 들어도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표를 차지해서 기쁘다”며 “정당한 선배들이 계셨는데 내가 뽑히는 게 맞아 생각도 했다. 이 팀에 가장 오래 남아서 희생 많이 한 결과물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당한 선배” 중 하나였던 이승기(전북)의 기



5월 9일 개막전을 앞둔 광주FC 선수들이 28일 광주전용구장에서 두 팀으로 나눠 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역도 떠올렸다.

“신인 때 우리러보던 형이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다”며 웃음을 터트린 여름은 “승기 형이 있었으면 내가 1등이 안 됐겠지만, 형이 게임 될 때 흘리던 여름이가 됐다. 전복하고 만나도 안 봐 주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K리그1은 5월 8일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개막전과 함께 막이 오른다. 광주는 9일 개막이 유력시된다.

여름은 “우리 선수들 모두 K리그1 경기를 뛰고 싶어서 간절히 개막을 바라고 있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며 “다른 팀 관계자들이 (광주를) 강등 1순위로 꼽았는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를 우승에 여길 수 없는 팀으로 만들겠다. 팀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1부에 오랫동안 자리 잡을 수 있는 팀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시즌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연달아 선보였던 이요뜸(5골 3도움)도 발전된 2020시즌을 예고했다.

이요뜸은 “후보만으로도 영광인데 베스트 11까지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무관중이기는 하지만 멀리서나마 응원해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개인적으로는 작년보다 포인트도 더 많이 쌓고 싶다. 지난해 기록을 깨겠다. 그만큼 더 연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4번째 시즌을 앞둔 이한도는 ‘마음 편한 선수’를 다짐했다.

이한도는 “내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가 맞는지 모르겠다. 너무 감사하다. 가족들한테도 축하 전화 많이 받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들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운동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관중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좋겠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올해는 좀 더 발전한 이한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기복 없이 안전한, 보기도 마음 편한 선수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활짝 웃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개막전, 팬들과 외치는 ‘플레이 볼’

다음달 5일 랜선 응원 이벤트...응원 인증 사진 등 전광판에 소개

채택 영상, 추첨 통해 선물

KIA타이거즈가 ‘팬과 함께 하는 개막전’을 준비한다.

KIA는 오는 5월 5일 오후 2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20 KBO리그 개막전을 갖는다.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됐지만, KIA는 ‘랜선 응원’으로 팬들과 잔치날을 맞을 계획이다.

우선 KIA는 팬이 보낸 응원 메시지와 ‘집관’(집에서 관람) 인증 사진을 경기장 전광판에 소개한다.

TV, 모바일 계정으로 경기를 관전하며 응원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응원 문구를 KIA타이거즈 카카오톡 계정에 보내면, 이를 전광판에 송출하는 방식이다.

또 KIA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플레이 볼’을 외치는 영상(10초 내외)을 모아 개막 전 연영상을 제작한다.

애국가나 어린이팬들에게 맡긴다. KIA는 애국가(1절)를 부르는 어린이팬(4~13세)의 영상을 모아, 개막전 국민의례시 전광판을 통해 합창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개막전에 함께하고 싶은 KIA팬은 ‘플레이볼 영상’과 ‘애국가 영상’을 5월 1일까지 이메일(kiatigersevent@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KIA는 영상이 채택된 팬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이밖에 KIA는 무관중 경기 기간 득점 수에 따라 사인볼을 적립,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 첫 경기에서 팬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응원단도 개막전에 출격해 선수단 사기 진작과 경기장 분위기를 띄운다.

서한국 단장이 이끄는 KIA 응원단은 지난 27일 홈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시즌 첫 응원전을 벌였다. 미리 호흡을 맞춘 응원단은 개막전을 통해 2020 시즌을 맞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퓨처스리그 올해부터 100경기 중계

스포카도와 3년간 중계권 계약

올 시즌부터 KBO 퓨처스리그 중계가 확대된다.

KBO가 스포카도와 지난 27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KBO 퓨처스리그 유무선 중계권 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스포카도가 퓨처스리그의 유무선 중계

권리를 갖는다.

스포카도는 올 시즌부터 퓨처스리그 경기를 연간 100경기 이상 제작해 중계할 예정이다.

올해 두산, 키움, LG 등의 자체 중계권을 중계한 스포카도는 5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 퓨처스리그 선수들의 생생한 경기 장면을 전달할 예정이다. KBO 퓨처스리그 중계 편성 일정 및 서비스 플랫폼은 추후 공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방망이 부러져도 홈런...최형우 사니 KIA가 사네

KIA, NC와 연습경기 8-6 승

연습경기 4게임만에 첫 승

최 “타격 타이밍 맞아하니 만족

개막 맞춰 100% 끌어올리겠다”

“방망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가 ‘방망이’를 이야기하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최형우는 지난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연습경기에서 3점포를 터트렸다. 5-5로 맞선 4회말 2사 2·3루에서 나온 이 홈런으로 승부를 뒤집은 KIA는 8-6으로 경기를 끝내며, 4번째 연습경기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이날 ‘한방’ 주인공 최형우는 ‘방망이’로도 화제를 모았다. “방망이가 문제”였다는 최형우의 말대로 방망이가 이상했다. 김진성의 142km짜리 직구를 통타한 배트가 스윙이 끝난 뒤 두 동강이 났다.

방망이가 부러졌지만 공은 담장을 넘어가면서 홈런이 기록됐다.

최형우는 “방망이가 문제인 것 같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 나도 잘 모르겠다. 처음 겪어봤다. 홈런치고 방망이가 부러진다는 건 난생 처음”이라며 웃었다.

홈런도 홈런이지만 타이밍이 맞아간다는 부분에서 최형우의 마음은 가쁘다.

최형우는 “중심에 맞춰려고 했다. 타이밍이 조금씩 맞아가고 있다. 100% 컨디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전보다 나아졌고 아직 시즌이 1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연습경기에서 이어 개막이 다가오면서 최형우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다.



KIA 최형우가 지난 27일 NC와의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타격 뒤 방망이가 부러진 모습.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웃은 최형우는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것 같다. 관중이 없어서 그렇지만 다른 팀 선수들 만나고 긴장감 있게 시합한다는 자체가 좋다. (경기하는 게) 내가 돈을 받는 이유다.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위해, 개막을 향해 부지런

히 달릴 생각이다. 최형우는 “지금은 그 전(시즌)하고 다르다. 귀국 후(부상으로) 한 달 정도 쉬었기 때문에 시합도 계속 4타석씩 치고 있다. 시즌 전일까지도 계속 준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